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오래된 적, 새로운 적      성경: 에베소서 6장 10-17절

Tag: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  
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엡6:10-17)

개인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몸무게가 클수록 유리하다. 복싱선수들  
은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원래의 몸무게보다 더 적은 체급에 도전한  
다. (그러나 상대방도 그런 전략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겨  
운 체중감량을 하게 됨)

영적전쟁에도 높은 몸무게가 유리하다는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  
하다. 유교적인 지혜로는 수신제가(개인의 인격적 문제, 집안문제) 한

다음에 치국 평천하가 지당할 것이다.(이 원칙은 인격함양을 위해서는 유리하다.) 다만 치국 평천하를 이룩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수신제가가 그리 힘겨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수신제가를 버겁게 여기기보다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뜻이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자체를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버겁게 여겨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피하라는 의미다.)

물론 수신제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하찮은 숙제거리라는 뜻도 아니다. 하찮은 문제도 많겠지만 평생을 씨름해도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도 많다.

다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때 개인적인 일이나 집안일이 훨씬 수월하게 해결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를 들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개인적인 미움들은 쉽게 사라지고 수월하게 용서가 된다.

(일만 달란트 빚진자와 백 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

그동안 나는 우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 10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이 강력해지고 강건하

기를 원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 진다.

영적 전쟁이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길러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라.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 영적 전쟁이라는 뜻. 이 말은 주먹  
으로 치고받는 싸움을 하지 말라는 도덕적 목적을 위한 말씀이 아님.  
(왼편 뺨과 오른편 뺨도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지 말라는 뜻.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뜻이지 저주라는 뜻이 아님.)

마귀가 시비를 거는 이유는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중에 모두 멸망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마귀의 목적은 멸망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승리다. 저주는 것을 통해서도 평화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러나 그것은 승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결코 마귀에게 무릎을 꿇지 않  
았다. 한번만 절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  
으셨다. 그 거짓말에 속지 않으셨다.

악에게 저주는 것은 평화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  
신다.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성경은 분명히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주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모든 통치자들이 주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모든 통치자는 하나  
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통치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  
님께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영적전쟁 이다.

문제는 통치자들 보다 ‘권세들’에게 있다. 이들은 통치자를 앞세우고 그 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통치자를 조종하려고 한다. 철저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도록 모략을 꾸민다.

예수님도 이들의 모략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셨다.

그들의 모략을 이겨보겠다고 밤 새지 마시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라. 다만 누가 우리의 적이요,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모략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략을 우습게 여기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적들이 등장한다.

다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이 ‘권세들’이 무슨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소위 ‘권세들’에 속한 자들은 주사파 그룹이다. 이들은 현재 청와대, 전국언론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핵심 세력들이다. (캐톨릭의 교리부와 같은 원리)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문화계와 방송계, 예술분야, 교육분야, 대학교 교수그룹, NGO 그룹 등 다양하게 ‘탈도덕, 탈 권위, 탈 정부, 안티 기독교, 성소수자 인권, 여성주의(페미니즘), 사회 양극화조장’ 등의 운동을 전개하는 자들이 오늘날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들이 과거에는 그 세력이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팔목상대해야 할 만큼 세력이 커져 버렸다.

사실 이런 운동은 세계적으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아직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은 그다지 세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우리에게도 위험한 세력은 ‘이슬람’ 세력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몰래 ‘테러범’들을 양성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역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다.

이들이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이름과 문화와 방법만 다를 뿐 오래전부터 세계사에 존재해 왔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해 왔으며, 사람들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불행과 저주와 멸망에 이르도록 갖은 악랄한 방법을 동원한 자들이다.

그러나 저들은 승리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굳세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것이다. 올 한해는 승리하는 해의 원년이 되도록 하자!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먼저 우리는 방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싸우다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가 철저히 방어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한다. 담대하게 한다.

-의의 호심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의를 삼으

라.

###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영적전쟁.

-다만 평안의 복음으로 전쟁해야 함. 효과를 위함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평안해야 함.

###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신념, 확신을 말함. 마귀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분명한 지식 훈련이 필요함.

###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 즉, 죽임을 당하지 말아야 함. 승리해야 함. 구원의 투구란, 죽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함을 뜻함. 죽더라도 구원받은 자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

###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10:39)

###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16:25)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장 효과적인 공격무기. 정확한 진리의 말씀 한마디가 수만의 거짓을 이겨냄.

-말이 많고 복잡해도 적들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으니 한번 숙지하면 그 변주곡을 금방 눈치 챌 수 있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